

남도김치로 본 버무림의 미학

문화향기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



‘2023 빛고를 사랑 나눔 김장 대전’이 지난주 광주김치타운에서 마무리 됐다.

김장 대전은 개인이 사전 예약한 날에 주문한 절임 배추와 김치 양념으로 손쉽게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었다. 김장 대전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인 배추, 소금, 고춧가루, 액젓은 로컬농산물로 구매하고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명인들이 함께 개발한 공동 조리법(레시피)으로 김장을 했다. 이곳에서 김장 경험으로 김치 체험의 즐거움은 물론 지역 상생의 지혜도 발견되어 남도 김치도 최고, 지역 상생도 최고라는 생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한국 김치는 K-푸드 시장에서 잘 알려진 대표 브랜드다. 남도 배추김치는 신선한 국산 배추와 자체 개발한 양념법을 이용해 만들어진다. 그 결과 김치는 깊은 맛과 독특한 향을 가지게 된다. 국경 없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이지만 우리 배추로 절인 김장김치는 깊은 맛과 강력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 광주와 전남은 김치 풍미를 극대화하며 전통 음식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김치축제 30주년이 되는 시점에 광주시는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광주의 손맛을 더해 김치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식재료가 풍부해 김치 원·부재료 주산지로 김치산업클러스터

최적지라는 점에서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치는 전통 발효식품으로 소금에 절인 채소에 젓갈과 고추·파·마늘 등 양념을 버무려 담근 음식이다.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김치는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으로, 면역력 증진 및 바이러스 억제, 항산화 효과, 변비와 장염·대장암 예방, 콜레스테롤 억제, 동맥경화 예방, 다이어트와 항암 등 효능이 있다. K-푸드 대표격으로 세계 김치 중주국으로 위상을 지켜 한국 김치산업 메카를 육성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의 협력적 클러스터는 필수적이다.

망설일 것도 없다. 김치는 원·부재료를 섞어 발효시킴으로써 맛과 풍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원재료에 없던 새로운 영양물질과 살아있는 많은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치의 건강 기능적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위생·안전성이 보증된 고품질 김치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 등 광주와 전남의 협력적 아이템은 차고도 넘친다.

김치 본향인 광주에서 남도김치를 알리는 2023 김치대전이 열리는 날 축사의 한 대목에서 이색적이었으며 남도 김치산업 발전에 울림을 주었다. “김장이라는 공동체문화와 K-한류 핵심인 김장을 통해 발전된 나라가 되길 바란다”

해남산 배추 등 남도에서 키운 풍부한 재료와 광주김치연구소 레시피가 버무려진 전통 발효기술과 독특한 맛을 전통과 혁신을 결합해 한국 김치 문화의 역동성과 융합의 지역 상생을 반영해 주고 있다. 세계적인 대표 주자를 키우는 ‘K-푸

드’의 대명사, 남도음식 글로벌화’에 대한 지역의 부진한 대응은 지역 자체 뿐 아니라 전체 국가 성장 및 지역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등 자원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 광주·전남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소멸 시기에 교통 기반시설과 지역 교류인구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광주와 전남 교통 기반시설을 연계 강화하고 상호 방문하는 교류인구를 늘려 경제 공동체로 지방소멸을 막는 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인구감소 시대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광주와 전남이 열린 마음과 상생정신이 있더라도 개별적·구체적 충돌을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이 가져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 간 담론문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관점의 이해 관계자 간 아이디어 공유와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 각자도생으로부터 소외되는 가치가 미래 사회에서 존중받거나 융합되는 가치가 미래 사회에 맞게 변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접근방식이 제때 실행되지 않는다면 기득권 보장이나 혁신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올 한해 회자하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메가시티 등 경쟁이 심화·가속화 하는 시대를 맞아 광주와 전남이 공동체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공존의 미학이 우선시 돼야 할 때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1일(현지시각) 볼리비아 베르사예스의 이테네스강에서 사람들이 새끼 거북 수천 마리를 방사하고 있다. 이날 베르사예스 공동체 회원들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거북알 소비, 불법 포획, 서식지 감소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거북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알에서 부화시킨 새끼 거북들을 강에 방사했다.

베르사예스=AP/뉴시스

서석대

중동전쟁의 여파로 1970~19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은 한국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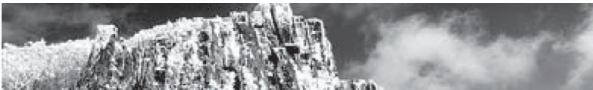
한국은 1979년 3월 석유가격을 9.5% 올린 데 이어 1981년 11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무려 337%나 유가를 인상해야 했다. 석유 가격이 오르니 석유로 만들던 각종 화학제품 재료 가격도 폭등했다.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급등했다. 1980년 물가가 무려 40%까지 치솟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1980년 한국 경제는 경제개발이 본격화한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5.2%)을 하는 수모를 겪는다.

석유 파동은 전 세계에 큰 교훈을 남겼다. 중동 전쟁 당시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자원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됐다.

한국은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시작으로 40년간 전국 9곳에 비축기지를 건설했고, 1억 4600만 배럴, 전 국민이 106일 동안 사용 가능한 석유를 저장해 두고 있다.

최근 국내에 제 2의 석유파동이 재현되고 있다.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이 두 차례에 걸쳐 요소 수출을 막으

석유파동의 교훈



면서 국내에 ‘요소수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중국 해관(세관)이 한국행 요소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2021년에도 중국의 수출 통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문제는 2년전 똑같은 상황을 거쳤음에도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당시 청와대는 ‘요소수 대응 TF’까지 가동했다. 해외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추진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됐다.이같은 대책으로 2021년 중국산 수입 비중이 97%에 달했다가 수입처 다변화 정책을 통해 중국 수입을 66%로 낮췄지만 올해 다시 90%대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자원 무기화가 노골화되는 형국이다. 단순 요소수 뿐아니라 지난 8월부터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이달부터는 배터리 소재인 흑연의 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얘기도 나온다.

어느 나라든지 국내수요가 우선으로, 필요하면 인정사정 없이 수출을 막는 게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다. 석유 파동 당시 자원확보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성수 논설위원

군공항 이전 협의 선택 아니고 의무다

오늘 전남지사·무안군수 회동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13일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만난다. 당연히 관심은 ‘군공항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지 어언 8개월.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이번 전남지사와 무안군수의 만남을 통해 답보상태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해법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김 지사는 지난 4월부터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동시 이전’을 촉구하면서 무안군수에게 거듭 대화 테이블에 나서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김 군수는 답하문으로 군공항 이전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공식 행사에 불참을 통보하는 등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선 운항 취항식에서 만났지만 김 군수가 함단을 피하면서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8월 택시관련 업무협약과 11월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 등에서도 만남은 있었지만 기대했던 군공항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은 광주·전

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허브공항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반대로 전략한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공항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합의’도 이뤄졌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얼마전 기자들과 만나 ‘무안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워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지난 4월 국가지원을 골자로 한 군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전을 위한 판도 만들어졌다.

김 지사와 김 군수는 어렵게 마련된 이번 만남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터야 한다. 광주·전남지역민의 ‘30년 숙원’이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지역주의에 연연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주와 전남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자치단체장이 만나 대화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숙명이지만 지역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협의는 선택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의협 파업 접고 의대정원 확대 협력해야

17일까지 총파업 설문조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11일 총파업 설문조사를 개시했다. 설문조사는 오는 17일까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총파업’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당장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협의 단체 행동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집단 휴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거부나 다름없다. 의협은 지난 2020년 진료거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의협의 주축인 동네의원 휴진율은 6~10%에 그쳤지만, 전공의 휴진율이 70~80% 수준에 달했다. 정부는 즉각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했다. 다만 정부는 그해 의협과 맺은 9·4 의정합의 이후 취하였다.

의협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의견들이 나온다.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국립대병원 등은 보건복지부와 간

담회에서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의협의 총파업 움직임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동안 전남은 의대 신설 움직임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 특히 전남은 응급환자가 1시간 이내 상급병원에 가지 못해 길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생명권을 차별받아서 안된다. 의사협회는 당장 지역 이기주의를 벗고 의대정원에 찬성해 전남의 의대신설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